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

그외 기독교적 인간관계에 대한 여타 주제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히 12:15)

서문

(Preface)

이 소책자의 앞부분인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와 ‘용서’는 과거 20년 동안 많은 수련회와 성경학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테이프도 제작된 메시지도 미국과 다른나라에 많이 배포했습니다. 수년 전에 나의 큰아들 더글라스가 그의 비서인 크리스 라모로에게 테잎중의 하나를 받아쓰게 한 후 여러번의 편집을 거쳐서, 이 소책자 1000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헤더 윌슨 토로시엔은 나의 딸이고, 아라멧 토로시엔의 아내이자, 예랜, 매시스, 그리고 세반의 엄마입니다. 헤더는 이집트에서 팔개월간 그리고 터키에서 약 오년간 기독교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크리스 블라초스 씨는 유타주 프로보에서 주님의 서점이라는 책방을 열고 운영하면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사역은 솔트레이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관한 성경공부 길잡이의 질문들을 작성한 매요리 다이케마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 애반이 새롭게 책자를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그래픽 예술가로서 헌신했습니다.

지역사회 기독 전도회(Community Christian Ministries)

사서함 9754 (PO Box 9754)

모스크, 아이다호 83843-0180 (Moscow, ID 83843-0180)

전화와 팩스 (Phone and Fax): (208) 883-0997

이메일 (E-mail): ccm@moscow.com

웹페이지 (On the web): www.ccmbooks.org

이 출판물은 공용 네덜란드어, 아르메니아어, 알바니아어, 약자-중국어, 전통-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텔루구어, 우르두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이 출판물을 또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면, 지역사회 기독 전도회로 연락하십시오.

목차

(Contents)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 (How to be free from bitterness).....	3
김 윌슨	
용서 (Forgiving Others).....	19
김 윌슨	
화냄 (Man's Anger).....	28
헤더 윌슨 토로시엔	
분노의 폭발 (Fits of Rage).....	32
김 윌슨	
상처 받음 (Taking Offense).....	36
헤더 윌슨 토로시엔	
혀를 제어함 (Bridling the Tongue).....	39
크리스 블라초스	
자기 관찰 (Introspection).....	42
김 윌슨	
부모와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Parents).....	45
김 윌슨	
포화된 사랑 (Saturation Love).....	52
김 윌슨	
여성의 안정 (How does a Woman Become Secure?).....	58
김 윌슨	
책임감 있는 남자 (The Responsible Man).....	61
김 윌슨	
편지: 질문과 대답 (Letters: Questions & Answers on Becoming a Christian).....	65
김 윌슨	
복음 (The Gospel).....	77
김 윌슨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

(How to be free from bitterness)

짐 월슨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4:31-5:2)

성경은 마음의 쓴마음(또는 쓴뿌리; bitterness)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쓴마음이 어떻게 제거되어지며 그리고 왜 제거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바가 우리 행위의 기본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즐겁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타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한 곳에서 그녀의 남편은 죽게되며 10년이 못되어 또, 두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근간에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음으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룻 1:13 b).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 며느리의 처지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러울 수 있는 권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녀 마음의 쓴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데려간 이가 하나님이며, 아들들을 데려간 이도 바로 하나님이므로 그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습니다. 위의 세 절 속에 다섯번에 걸쳐 하나님이 자신의 쓰디쓴 마음에 책임이 있다고 그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쓴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태를 즐깁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이를 즐기기도 하며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쓴마음이 제거되더라도 한다면, 그들은 난감해 할 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쓰디쓴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며, 교회 내에서도 또한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쓰디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얼굴의 주름살에서 --- 그들이 비록 젊다 할 지라도 --- 그들의 입가에서, 그들의 어색한 미소 속에서, 웃음 속에서, 목소리의 음색에서 당신은 그들의 쓴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통 중에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마음이 ‘쓰지’ 않다고 반박할 때에도 당신은 그들의 쓴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쓰디쓴 마음이란 우리 마음에 응어리져 있다가 심장에서 분출하는 혈액처럼 우리의 전신에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오미 이외에도 쓰디쓴 마음의 소유자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요나는 쓰디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박녕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다.” (욘 4:9) 라고 응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화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다니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타인에 대하여 반감 갖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쓰디쓴 분노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상냥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쓰디쓴 분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향들은 모두 내면적 태도들인데, 유순한 마음과 쓴마음은 정 반대되는 태도들로서 그들이 동시에 함께 내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쓴 마음들을 제거하고 서로에게 친절하며 돕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쓰디쓴 분노의 마음은 필히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거되기 이전에, 이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이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쓰디쓴 마음의 소유자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쓴마음을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쓴마음에 대한 성서적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감지하는 것은 정죄감일까요, 쓴마음일까요? 답은 ‘정죄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정죄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일입니다. 이제, 어떤 이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거짓된 이야기를 동네에 퍼뜨리고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감일까요? 아니면 쓴마음일까요?

정죄감이란 우리가 죄지었을 때 감지하는 것이며, 쓴마음이란 타인이 우리에게 죄지었을 때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쓴마음에 대한 정의는 타인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타인을 화나게 했다면 우리는 정죄감을 감지할 것이며, 죄를 고백해야 할 것과 그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인의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쓰디쓴 분노의 마음은 항상 타인이 저지른 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는 실제적 ‘근거’에 의한 것과 가상적 ‘상상’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상적 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가 실제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그가 언급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쓰디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곡된 소문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대방이 할 수도 없는 사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대할 수 없는 사과를 기다리면서 여생을 쓴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요?

쓰디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 가상적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쓰디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상대방의 비행은 항상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쓴마음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한다면, 타인이 정말로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비행이 정말로 존재하는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릇된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디쓴 마음은 어느 정도 당신과 관련성을 가진 타인의 죄에 그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죄의 크기와 관련되어있기 보다는 당신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일 가공할 만한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이란, 이라크, 엘살바도르, 또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도 당신은 정죄감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쓰디쓴 마음도 갖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당신은 경악하겠지만, 정죄감도 죄악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엄청난 죄이며, 누군가가 실제로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즉, 쓰디쓴 마음은 악의 크기에 기인치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룸메이트, 직속상관, 직속부하, 동료, 동업자, 그리고 아마도 다른 친척들인 조부모, 삼촌 등 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까지 쓴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쓴마음은 우리와 가까운 관계이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했던 어떤 사람의 죄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반드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놓습니까?” “당신은 남편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쓰디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오천번을 그렇게 반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당연히 쓰디 써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쓴마음을 가질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분노를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를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히 12:15)

여기서 보면 쓴마음이 뿌리인 것 처럼 기술되고 있습니다. 뿌리란 땅 밑에 있는 것이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지금 볼 수 없음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 블럭이 파헤쳐지면, 그것의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뿌리는 다른 일들도 합니다. 뿌리는 영양분을 마시며 그 영양분은 그 상태로 뿌리에 머물지 않고 결국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맺혀진 열매는 그것을 만든 뿌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사과나무의 뿌리는 우리에게 사과를 공급합니다. 만약 그곳에 쓴뿌리가 있다면, 쓴 열매를 맺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기 성경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쓴뿌리라도 솟아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교회를 빠른 속도로 번져 가는 것을 당신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는 마치 대 초원에 질러진 불처럼 빠르게 회중 속을 지나 갑니다. 그리고 직장을, 또는 기숙사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다른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쓰디 썼었고, 그 뿌리가 땅 표면으로 솟아나도록 허용했으며, 결국 열매를 맺히도록 방관한 것입니다. 그는 쓴뿌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하여 경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쓴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때, 쓴마음의 뿌리는 자리 잡게 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불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쓰디쓴 마음을 수 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에게 신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가 육체적 질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가족중의 어떤 사람에게 쓴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쓴마음을 마음 속에 담아두고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습니니다. 오랫동안 담아 두었다가 결국 그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 의사는 말하기를, “맞습니다. 당신은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병은 제가 다룰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른 종류의 의사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지고 의사는 또한 동의하기를 “맞습니다. 당신은 병이 들어 있고 당신이 왜 병 들었는 지를 저는 압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지난 20년 동안의 증오 때문에 당신은 병이 든 겁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 속에 깊이 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부에서 썩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이 독극물을 내부에 담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생긴 산성의 독이 당신의 육체를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것을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왜 맘속에 담고 있다가 병이 됩니까? 그것을 밖으로 내 보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병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쓴 즙을 맘 속에 담고 있다가 자신이 병 들든지, 또는 발설하여 병을 퍼지게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 뿌리를 파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쓴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으려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모방할 때, 그들은 그 두가지 조악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쓴마음을 없애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담아 두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나 너희 맘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니 (약 3:14,15)

나는 해군 사관생도 초기 시절에, ‘좁은 마음’과 ‘시기심’이란 시간이 흐를 수록 없어지고 인간은 성숙해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계급이 올라갈 수록 더욱 성숙해져서 그와 같은 것들이 최소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욱 강해지며 쓴마음도 더욱 축적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한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쓴 마음의 감소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디쓴 시기심에 마음의 닳을 내려 버린다면, 그 결과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으로부터 온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동은 ‘쓴마음’에 마음의 닳을 내려 버리기 때문에 일어 납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쓴마음을 제거하는가’가 우리의 당면문제인 것입니다.

쓴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쓰디 쓰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가지 간단한 방법이 여기 있는데, ‘쓴 마음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수천 가지의 대화를 해 왔으며 그들의 대부분을 당신은 잊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전에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하여 한 마디 한 마디 상대방의 억양과 목소리의 높낮이 모두를 기억한다면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로 인하여 쓰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멋진 대화에 대한 좋았던 추억도 역시 기억에 남는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겠죠.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희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억이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또 돌아보고 함으로써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훌륭한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반면, 나쁜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나는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했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한 그 시점에서 행복했었던 시절을 단 한번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한가지 일은 자기의 상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돌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행복했었던 시절이 없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옳았으며 상대방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 돌아 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년 전에 발생했던 일, 즉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날카롭고도 상세한 기억을

갖고 있고 또한 그 기억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면 이는 곧 쓴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쓴마음의 해결책은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서 나는 참으로 멋진 경험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의 오랜 친구 가정에서 몇몇 가까웠던 분들 앞에서 쓴마음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교제 이후에 한 부부가 나에게 다가왔는데, 워싱턴 주의 풀만에서 그들을 만난 이후 8년간 나와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자매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첫해 저는 어머니에 대한 쓴마음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 남편에게 내려 놓았습니다. 그 해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끔찍했던 해였는데, 이는 내 어머니에 대한 쓴마음을 남편과 공유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7년 전에 제가 쓴마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들었으며,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쓴마음을 제거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날 하루는 그 자매가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 또한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참으로 큰 쓴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그 여성을 나는 도울 수 있을 꺼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그녀에게 갔으나, 나누어야 할 내용들을 도무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쓴마음에 대한 상세했던 기억들이 나를 떠난 것이었어요. 내가 그 여성에게 말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내가 예전에는 그것들을 기억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그 자매의 쓴마음을 고치신 것입니다.

한번은 결혼에 대한 4주 코스 강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어느 의사의 추천을 받아 그 강의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표현한다면, 저의 생애에서 그토록 쓴마음의 모습을 했던 사람을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 마음엔 40년 동안이나 쌓여 온 분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쓴뿌리(쓴마음)를 제거하였으며, 그 다음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점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녀가 서점에 들어 왔을 때, 나는 그녀가 누군지 잠시 동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불과 하루 전에 그녀를 만났었으나, 그 사이 그녀의 내적 심령은 깨끗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왜 우리는 쓴마음을 제거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려면 우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되돌려 놓아 느끼게 해야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쓴마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나에게 일을 저질렀던 자를 주시하도록 유혹받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라”는 것이 쓴마음의 본질입니다. 그 쓴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기 이전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맘이 쓰디 쓰지는 않았습니니다. 단지 조금 상처 받은 느낌일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처 받음’의 증세는 ‘분개’의 증세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분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단지 마음이 상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처 받음’과 ‘분개’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바, 사람들은 상처 받은 후 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개는 깊은 쓴마음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쓰마음은 내부에 담고 살아왔던 분개일 뿐입니다. 그것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져 내부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연쇄반응은 계속됩니다. 쓰마음과 미움은 연결되어 있는데, 미움과 살인과의 관계를 성경은 매우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처가 살인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한 표현이라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나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마음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쓰디쓴 마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자신이 쓰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로 그것이 엄청난 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사람들이 이 죄를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다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 그 자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 자가 사과해 온다면, 그때서야 당신의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가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자가 죄짓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당신의 여생을 쓰마음의 상태로 지속해 갈 것입니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가 사과하면 그를 용서하겠어. 그 이전에는 안돼. 그때까지 나는 마음이 쓰디쓸 이유가 있어. 그러다가 그 자가 사과할 때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될 것이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쓰마음이라는 벽을 쌓아 버렸는데 어느 날 그 자가 당신에게 와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마음이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사과했을 때 그 자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면 당신은 그의 사과 이전에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사과하기 이전에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가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쓰마음을 당신 혼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쌍무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떠한 보상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전반부에 언급 했듯이 쓰마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가상적이든지 실제적이든지, 이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바 일뿐, 사실 쓰마음의 사람들은 가해자의 향후 행위와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비통해지기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자가 내게 범죄했다 말입니다. 그가 사과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사과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극도로 쓰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수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 화살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쓰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쓰마음은 비통해 하는 자신 혼자만의 죄이며, 아무도 연관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성탄절 즈음에 워싱턴 주에 있는 도시, 왈라 왈라에 있는 주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들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 내내 나는 ‘최대 경비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때 한 죄수가 맘이 강박한 범죄자들에 대한 전도 방법에 대해 물어 왔습니다. 나는 그가 그 분야 사역에 대해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최저 경비지역’인 보호실 및 여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어 다시 ‘최대 경비지역’으로 돌아 왔으며 ‘쓴마음’이란 주제로 수감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전도에 대하여 물어왔던 바로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물어 왔습니다. “어떤이가 당신의 세살 박이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놓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쓴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덧붙여 “당신의 쓴마음을 제거했을 때, 그가 다른 아이들을 다시 때리지 않도록 그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그 자는 도움을 받지 못해요”라고 했었고, 이어 나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 살박이 아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던 사람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수감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감자는 그 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그의 쓴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쓴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즉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쓴 마음의 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쓰디 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쓴마음’이 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단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어쩌면 쓴마음을 주었던 그사람이 한참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죄수처럼 그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외에는 다른점이 없습니다; 그사람은 죽었고 당신은 아직도 쓴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독교 신자였다면, 그는 용서받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에 대하여 쓴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아래의 데살로니가후서 1 장 6-8 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테후 1:6-8)

로마서 12 장 19 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롬 12:19)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들이 살아 있을지라도, 그들이 당신의 쓴마음을 처리해 줄 수도 없고, 당신이 그들을 쫓아 다닌다고 쓴마음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죽었더라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민감하게 하고 또 쓴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수년동안 당신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신의 쓴마음은, 당신이 그 원인을 무엇이냐 생각하던 당신의 죄입니다. 쓴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죄악임을 당신이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당신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쓴마음을 담고 있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도 안됩니다. 해결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은 한가지 밖에 없으며, 이것은 그 쓴마음이 엄청나고도 사악한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몬테리에 있는 미 해군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간부급 인원 중에 한 성경공부 리더가 있었는데, 그는 성경교사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함을 지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장교였지만, 매번 잠수함 지휘권자 임용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잠수함을 지휘할 수 없었기에, 쓰디 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쓴마음에 대하여 나누었으며, 그 쓴마음이 자신만의 죄임으로 회개해야 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씻어 버렸습니다. 그는 나를 보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모든 쓴마음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아내는 “나는 새로운 남편을 갖게 되었어요.”라고 나에게 아침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 해군을 향하여 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미 해군의 죄가 아닙니다.

*에이미 카마이클(Amy Carmichael)은 그녀의 저서 ‘만약(If)’이라는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 물’이 가득한 컵은 단 한 방울의 ‘쓴 물’도 흘릴 수 없다. 단지 그 컵은 담고 있는 것을 밖으로 쏟을 뿐 이다.” 만일 그 잔이 단 물로 가득차 있고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흔들려 진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단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더욱 세게 흔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단물이 나올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 그를 흔든다면 무엇이 분출될까요? 단물입니다. ‘흔들’으로 인해서 단물이 쓴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내 보내게 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온유와 빛으로 가득차 있다면, 당신에게서는 온유와 빛 만이 흐트러져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꿀로 가득차 있다면 꿀이 나올 것입니다. 만일 식초가 흘러 나온다면, 이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쓴마음은 전혀 타인이 행한 바에 그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는 ‘내 행위의 결과’이며 ‘자신의 산출물’인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나는 침실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베시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때 마침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렵게 진행 되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베시가 나에게 무슨 말인가 했었고, 나는 돌아앉은 뒤 거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나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곧장 일어나서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나는 그녀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녀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봐. 봐! 보란 말이야.” 10여분 가량, 아마 좀 더 오랫동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시를 향하여 쓴마음을 가졌으나, 그녀가 내게 한 것은 ‘나’라는 ‘컵’을 단지 흔든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컵’에 있던 ‘내’가 밖으로 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온유함과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내의 반응에 대하여 나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쓴마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녀보다 그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거기 앉아서 그녀가 행했던 바, 즉 ‘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남을 비난함에는 모종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곳에 한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난 후, 침대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것은 저의 쓴마음이었으며, 저의 죄였습니다. 이것을 주께 회개하오며 지금 버리오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일어서려는데, “그러나, 저는 그녀의 행위에 화가 납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나는 다시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행위를 뉘우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단지 저의 죄입니다. 단지, 저의 죄일 뿐입니다.” 라고 회개했으나, 나는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잘못했는지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녀가 했던 바를 좀 보세요.”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 때까지 45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 드렸습니다. 지금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내가 책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기억나지 않습니다. 쓴마음에 대한 상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기억나는 것은 ‘일어섰다’ ‘무릎 꿇었다’를 여러번 반복했었다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때 그 쓴마음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했던 말들을 오늘날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쓴마음’의 진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는 그것이 악한 것이며 그것이 나의 죄, 단지 나만의 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과의 말을 통하여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악한 행위를 중지 하거나 심지어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 길을 제외하고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고 여기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죄로부터 내 시선을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잘못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쓴마음이 아니라 온유와 빛으로 가득차 있었다면,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 분함을 품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 참 안됐어! 내가 만일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기분이 참 안 좋을 텐데. 지금 그의 기분도 끔찍하겠지. 내가 가서 그를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반응이 이와 같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쓰디 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의 죄이지 어떤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바로 이 죄가 이 나라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그들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쓴마음으로 부터의 자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4:31-5:2)

토론과 질문

1. 쓴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 쓴마음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3.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쓴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4. 쓴마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쓴마음의 특성은 세세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상황과 대화중에서, 쓴마음을 가진 기억은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때 사용된 단어, 억양, 음성의 변화등, 모든 상세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5. 세상적으로 분노를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a.
 - b.

우리가 쓴마음을 제거하는 첫단계는 쓴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쓴마음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쓴마음이 다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 쓴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 3:14-15)
우리가 동정적이고 다정하면서 동시에 쓴마음을 갖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쓴마음이 생기게 한 상황을 회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임하시도록 하시면서 쓴마음을 내려 놓으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이문제를

폴도록, 당신이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따라,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구 발행본을 읽은 독자들로부터의 편지 (Letters from Earlier Editions)

짐 목사님께 인사 드립니다.

목사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읽은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가끔은 인식하지 못한 채 쓴마음을 품는 죄를 범해 왔기에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메세지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사람에게 대한 쓴마음으로 고민중이었고,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쓴마음에 관한 이 글은 나의 남편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읽었고, 저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저는 그것을 제마음속에 품은 채 갈등하지 않았고, 또 제가 쓴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가서 제 쓴마음을 나누지도 않았으며, 단지 하나님께 직접 무릎꿇고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사람을 향한 쓴마음에서 벗어 나도록 도와 주셨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인생을 바꿔주는 이 훌륭한 메세지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전 제자 훈련 센터의 스티븐 데이비드의 아내 카이타냐 데이비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의 죄를 드러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제자신을 단련케 하시며,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글은 제 삶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예수님의 자녀, 카이타냐 데이비드 씀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쓴마음에 관한 책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한 죄수를 면회 했는데, 그는 이 책에 대해 재차 저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수감되어 있는데, 저는 그의 경직되었던 모습이 지난 몇달동안 사라져 버렸음을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리치 드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 이름은 _____ 입니다. 저는 멀티노마 카운티 감옥의 죄수로, 공공장소에서의 만취와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으로 180 일 동안 복역중입니다.

최근에 저는 쓰레기통에서 목사님의 소책자를 주웠습니다. 책자의 물기를 말린 후 읽고나서, 저는 이 책자가 저의 피폐해진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의 선물임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이 책자는 제 곁에 있고, 이젠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책자 한권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가를 보기위해서, 단원별 내용을 반드시 손으로 쓰게 합니다.

예배당 사무실의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 이 책자가 왔는지 모른다고 하며, 아무도 그 전에 이 책자를 보았거나 소장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저는 이 책자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죠. 이 책은 내 삶과 태도를 변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빛과 희망을 주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월슨 목사님께,

1993년 연말에,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종의 계시와 같아서 제 삶을 새롭게 해야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해야 했고 (저는 전남편과 10년 전에 이혼했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수도없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직장 동료용 용서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14년 동안 가슴속을 내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도에 위치한 과학위원회에 속한 최고위원회의 고위직으로 옮길 기회가 생겼을 때, 그녀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게도 그들에 대해 그같이 쓴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저의 삶의 모든 장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 기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드릴 때 쏟았던 정결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으나, 더없이 기쁘고 기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2 \times 2 = 4$ 와 같은 일종의 맛있는 사실입니다. 쓴마음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졌기에, 전 행복해졌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모든 나의 친구들은 러시아판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넬, 너무 쉽고, 굉장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를 배워 너무 행복합니다. 누가 이 책을 주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큰 규모의 선교팀이 많은 양의 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많은 책속에 이 책을 끼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쓴마음으로 피폐화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짐 월슨 목사님 본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편지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목사님은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 노보시버스크 에서
넬리 프로볼랏스카야 드림

월슨 목사님께,

_____는 저의 친한 친구이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당신의 책,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증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남자형제와 그 아내인 올케가 서로 가지고 있는 쓴마음의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친구에게 이 책자를 주었습니다. 아래는 그녀가 제게 보내온 이메일의 일부입니다.

“그 ‘쓴마음’에 관한 책을 나의 동생과 그의 아내에게 보냈어. 내동생은 그 책을 살살이 읽었고 그의 아내도 또한 읽으라고 권했어. 그당시에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안한지 2주째에 접어들고 있었어. 그 책을 주면서, 내 동생은 그가 범한 여러개의 잘못을 사과했고, 사랑한다고 말한 후에 출근했대. 그런데, 동생이 퇴근 했을때,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녀의 쓴마음과 사악함이 얼마나 그녀의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울면서 말했다더군. 동생이 말하기를, 그것이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 거래. 동생은 전화해서 그 책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어. 거듭 거듭 고맙다고 하면서 그의 감사가 전달되기를 무척 바라더라. 그 책은 내 동생의 삶을 바꾸었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변화 시켰다고 하더군. 나도 읽어 보는 게 좋겠어”.

목사님의 책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어루만졌는지 목사님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대니스

월슨 목사님께,

목사님께서 보내 주신 책, '낮과 밤'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첫 날에 책의 반을 읽었고, '쓴마음'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간단히 목사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른 여덟살이고 모태 신앙인입니다만, 1995년 11월 4일에 있었던 수련회 때에 비로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십대 초반부터, 제 손가락들은 건성 피부여서 갈라져 피가나고 벗겨지곤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25년 동안 건성피부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알려진 치료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 요법, 민간 요법, 그리고 나의 증세를 걱정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알려준 것들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텍사스에서 기초 군사훈련 중에는 미국 공군병원의 피부과 과장께서 저를 치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제대로 증상이 좋아진 시기가 없었고, 효과가 있더라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에는 피부 습윤제를 발랐고,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을 끼었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심한 날에는 일터에서도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쓴마음'에 관한 책을 받은 다음날, 제가 공군 제 6 원정대의 일원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파병 되는 날 이어서, 군장을 쌀 때 그 책을 짐안에 넣고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는 중에 읽었고 도착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쓴마음'에 대해 한동안 생각한 결과, 나의 문제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나의 쓴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건성피부가 나의 쓴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발현증상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때 이후로 쓴마음(그리고 건성 피부)을 내어 놓았고, 할 수 있는 한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려 노력했습니다, 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처받음과 화냄으로부터 피하고 멀리 했습니다. 제가 45일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제 피부는 25년 만에 다시 정상이 되었고,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없이 행복합니다. 저는 매주 '쓴마음' 책을 되풀이해서 읽고 있으며, 쓴마음 없이 말씀 안에서 저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토니 드림

짐 보게나.

잘 지내고 있겠지. 자네의 '쓴마음과 용서'에 관한 작은 책자의 또 다른 간증에 관한 짧은 편지를 쓰네. 그 책자는 내가 쿼티코에 임무차 떠나기 전 예상치도 않게 우편함에 도착해 있어서, 여행중에 읽으려고 여행가방에 집어 넣었지. 나중에 읽게 되었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네.

관티고에서의 수업 후 어느날, 한 장교가 와서는 나의 조언을 구했네. 그 예비역 소령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네. 그녀는 그녀의 상관인 대령을 법적으로 고소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네. 다음날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상관이 그녀에게 가한 억울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20 페이지의 법적인 서류를 나에게 주었네. 어떤 내용도 내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이 없었지만, 그것들이 엄청나게 그녀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이 분명했네. 나는 그녀가 나와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주는 글을 읽어보도록 요청을 했지. 그래서 그녀는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읽었네. 그 글은 그녀가 가진 문제의 정곡을 찔고, 그녀가 지금까지 교회안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굉장한 의미로 부딪쳐 다가 갔다네. 나중에, 그녀 상관의 문제를 처리 하면서 (그리고 과거의 심각한 상처를 치유 하면서), 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었네. 그 토론 중에, 나는 만약 그녀가 그 날 죽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그녀가 아는지.. 등을 물어 보았지. 그녀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했네. 그녀는 대답하기를, “그 쓴마음 책을 읽은 뒤로는,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죽은 후에 나에게 어떤일이 생길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더군. 나는 이 대답을 통해, 자네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하나님 율법의 가르침 이었고, 그 가르침이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했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도록 했음을 확증할 수 있었네. 나는 하나님께서 자네의 글을 사용하심에 기뻐고, 하나님께서 그녀가 믿음안에서 굳건해지도록 해주실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네.....

자네의 우정과 주님 안에서의 리더십에 감사하네.

잘있게.

스티브 보냄

월슨 목사님께,

저는 월슨 목사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즐겨 읽고 있고, 그리고 수년 동안 목사님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미국 해군 사관학교 1974년 졸업생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쓴마음’ 책을 수년 전에 읽었고, 저의 작은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항해사 요원으로서 22년 동안 기독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계급이나 명성이 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잘못 생각 했기에, 진급에 누락 되었을 때, 쓴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쓴마음이 늘 마음속에 상주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자, 더 많은 사건들로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많은 감각적인 공격행위의 뿌리가 되었고, 저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쓴마음이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슬픈사실은 제 주위의 모든 사람은 그것을 뻔히 보았지만, 저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목사님의 책자를 읽은 후에, 처음으로 저는 쓴마음이 ‘죄’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안에 있는 쓴마음의 모든 뿌리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16개의 다른 쓴마음의 뿌리를

열거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쓴마음의 뿌리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의 감독관을 만나서 16 개의 쓴마음의 뿌리를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저를 용서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영혼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혼은 쓴마음의 씨가 자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의 16 개의 쓴마음이 다시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부지런히 감찰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책자와 가르침에 감사 드립니다. 이 책자가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졌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밥 드림

용서

(Forgiving Others)

짐 월슨

너희가 각각 중심(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5)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시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용서를 구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어떤이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함’에는 몇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으나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응답은 “아무것도 용서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정중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거부하는 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이의 용서를 받고자 할 때,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용서해야 할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용서 할 것이 없다”라며 그 청을 피해 갑니다.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때때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심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심(진심)으로 부터의 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진심으로 용서하는지,

안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부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각자를 특별히 다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입바른 단어구사만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했는지, 명목상으로 용서했는지를 아십니다. 당신이 당신 앞에서 그 사람을 설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심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설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또한 용서에 관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요구조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1)

베드로는 자기가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마 18:22)

당신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분이 용서를 ‘일흔 번씩 일곱 번’으로 제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어 볼 것인가요?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기록 할 권한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가 베풀었던 용서의 횟수를 헤아린다면 거기에는 ‘참 용서’는 없습니다. 형제가 당신에게 범죄할 때마다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각각 그 때마다 그것이 처음인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도 돌려 대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르치심을 잘못 응용 해왔습니다. “그래, 그가 내 다른 쪽 뺨도 때리게 하자. 그러나 그가 내게 세 번째 주먹을 날린다면, 그를 마루에 눕혀 버릴 거야”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쪽 뺨도 돌려 대라고 가르치신 것은 진심으로부터 돌려 대라고 의미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자가 당신에게 70 회씩 7 회, 도는 490 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가정 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당신에게 죄 짓고 있다’ 라는 것이 주님의 주안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횟수를 헤아리고 있다면 당신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갠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갠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23-25)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탕감 받았으며, 이때 삭감된 빛(죄)의 분량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바로 그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화 속에 나타난 ‘빛의 탕감’ 처럼 우리는 큰 빛을 탕감(용서)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 장 13 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 3:13)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 ‘받은 바 대로’ 용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진 자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조건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예화에 나타난 악한 종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방법으로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용서한 것처럼 제가 용서 받으면 저는 큰일나게 됩니다, 곤란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조건적 용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다음 구절인 14, 15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라 (마 6:14-15)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예수께서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의 천부께서도 나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조건적 용서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조건적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큰 빛을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명령받은 것입니다. 즉, 그 '무조건'에는 '조건'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용서한 것 같이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함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주께로부터 '받은'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주는' 자입니다. 받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용서가 이어지지 않을 때 모순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않은 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용서 받았습니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용서 받은 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강한 어조의 말씀이십니다. 만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 15-20)

이구절은 '악한 중' 예화 앞에 놓인 것으로서 역시 '진심으로부터의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면 가서 당신과 형제 단 둘만의 상황에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보여 주십시오. 만일 그가 들으면 당신은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글쎄,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나도 노력 해 봤었죠.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고, 나는 상당히 화가 나서 그에게 가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보여 주었는데, 전혀 그를 얻지 못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기 성경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치로 와 닿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죄지은 자를 이런 방법으로 찾아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죄지은 자에게 그의 행위를 말하고서 어떻게 그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방어적이 될 텐데요.”

그가 왜 방어적으로 될까요? 누군가가 그를 문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용서를 가지고 간다면---이는 본장의 결론인데---문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릇 고쳐 주는 자’가 쓴마음과 분노와 문책의 영혼으로 그를 찾아간다면 결코 그자를 얻지 못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버릇 고쳐주는 자’로서 그를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용서가 있을 때에만 그를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의 회개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회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그가 듣는다면 우리는 형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접근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듣지 않는다면 한 두 사람을 데려가되, 그들의 마음이 이미 ‘용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문책과 함께 어떤 이를 방문합니다. 맞아들이는 사람은 방어적이 되고 방문한 이들은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은 한 두 사람이 모아지게 되고, 그들은 종전의 방문과 다른없는 ‘버릇 고쳐주는 자’로 지원하게 되고, 그들은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빛진 자가 회개를 거부 할 때, 그것은 분명히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때 교회에 말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용서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교회징계’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에게 가서 설득하고, 그 자는 거부하고, 그들은 두 세 사람이 되어 그 자에게 가서 다시 설득하게 되고, 그는 다시 거부하게 되고, 이제 교회는 그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심으로부터의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징계’ 목적의 하나는 위반자를 재활 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취급받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5 장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대로 대우하라고 말씀하십니다---공평하게. 또한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로서 대우할 때에도 그것은 여전히 사랑의 대우이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을 교제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되, 사랑과 진실된 용서로 대하라는 의미이지,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징계의 교회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진심된 용서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를 몇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그 예화(역주: 70 번씩 7 번)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무제한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잘못에 대한 기록을 고려하지 않으며” (고전 13:5)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채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간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것은하고, 결코 저것은 하지 않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채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기록은 감정 상함이 쌓여 갈 때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것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로 가득 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의사 결정을 높이십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기계적인 공식을 도입했다면 주께서는 그것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랑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그리고 용서로 가득한 믿는 자들의 지체가 회개의 의도가 없는 자를 훈육하기 위한 결정이라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를 높이십니다.

‘두 세 사람이 동의하는 무엇이든지...’라는 구절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맥에서 벗어나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교회 훈육에 관한 것이며 형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본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용서의 횡수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의 바로 그 사이에 위치 해 있는 것으로서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용서를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죄 지었던 자의 ‘용서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구절과 쓴마음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쓴마음은 참으로 ‘용서치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행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쓴마음은 이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죄’만을 바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쓴마음인 것입니다.

용서란 어떤 의미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늘에서 원한을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갖고 계셨습니다. 용서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로 뺀 일방적인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했던 행위나 말들을 상고하지만, 용서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행위나 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진심된 용서를 가질 때 그는 자신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반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주님, 일곱 번까지는 용서해 주겠습니다만, 여덟 번째까지 가게 되면 그는 고생 좀 할겁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가족 내 또는 외에서 당신이 ‘헤아리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심의 용서를 하지 않는 한, 천부께서도 당신의 부족한 용서처럼 ‘부족한 용서’로 우리를 다루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 중심(진심)으로 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그런데, 내 마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은, 불쾌하고, 증오하고, 태도가 나쁘고, 원한을 갖고 있는 등등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서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두가지를 모두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맘’을 가지고도 교회에 나가서 찬송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꾸며진 가짜입니다. 그 찬송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찬송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들이 심령이 정결하다면, 굳이 찬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충만한 심령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끗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못 이겨서 찬송하는 것과 기쁨을 만들기 위해 찬송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쁨을 만들기 위해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이 멈추면 조만간 그 기쁨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결치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상대방은 문제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서 결핍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 할 때,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에 용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이 얼마나 틀렸는지, 또는 얼마나 자신에게 큰 죄를 범했는지에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자세가 옳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매우 완고해져야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용서를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가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완고한지에 상관없이 당신의 목소리의 억양을 통해 용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쓴마음으로부터의 완고함과 사랑에서 우리나라는 완고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명확히 해야 할 단 한가지는, 대화에 임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는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분명히 그 차이를 압니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매우 엄격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전 3월에 주께로 돌아 왔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 사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으며, 졸업학년에는 주님과 진실로 올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졸업 이후 여름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기를 원했었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하고 그를 기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일단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여 6월에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내 아내는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냐고 물어 봤습니다. “좋지 않아”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이전과 똑같은 문제인가?” “그래” “같은 여성인가?” 그리고 그는 그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를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는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웠다네. 커다란 기쁨과 평화가 있었지”라고. “그래 사실이러네. 자, 주님은 다시 하실 수 있다네. 지금 우리 기도하세. 자네는 회개와 고백을 하고 다시 회복 될 수 있네.”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아네.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봤었지. 나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알아. 그러나 나는 지금 전혀 준비 되어있지 않네.”

“나는 자네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네. 자네에겐 선택권이 전혀 없네. 자네가 더 잘 알거야. 자네는 지금 회복 되어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네,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네.” “음, 그렇다면, 나는 자네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교회에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네.” “내가 자네를 믿고 털어 놓은 사적인 말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말인가?” “나는 그것이 나를 믿고 털어 놓은 말이라는 것을 몰랐었고, 자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몰랐으며, 회개치 않을 것임을 나에게 말할지도 나는 몰랐었네. 우리는 앞으로 자네와 친교시간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가져가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는 자네와 함께 먹지 않을 것이네. 자신을 형제라고 칭하는 음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 교회가 그다지 신실하지 않을시엔 나를 소문내는 자로 삼아서 나를 쫓아낼 수도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에게 교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네. 또한 나는 기독 장교회에 말하겠고,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신속히 자네를 제명시킬 것이네. 웃을 일이 아니네.”

그는 화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5 장은 우리가 자네와 같이 먹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비도덕적인 사람들과는 교제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네. 만일 어떤사람이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먹지도 않네. 자넨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자네가 회개치 않을 작정이기 때문이지. 자네는 지금 회개치 않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자네 물건을 집에 들여왔으니 오늘밤은 이곳에서 머물 수 있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 자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나는 아침 식사 이전까지 자네가 이 집을 나가 주기 원하네. 그리고 자네가 내 아내나 아이들에게 말 거는 것도 나는 원치 않네”

그는 대단히 노하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매우 사랑하네. 내가 자넨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네. 자네가 그리스도안의 교제 가운데 온 여름을 여기서 보내도 되지만,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자넨 내일 아침 식사를 여기서 먹을 수 없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내가 그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악의와 함께 똑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면,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침 식사 이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해 여름을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훈육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훈육이 있다 함이 그곳에 사랑의 결핍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며 당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만일 어떤 이에 대하여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심각한 일일지라도 당신을 신속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속히 용서하십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용서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마 18:21-22)

토론과 질문

1.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던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2.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던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일곱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세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셈할 경우에, 하루에 일곱번 용서한 후 더이상 용서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용서를 구할지라도, 언제나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진실로 회개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눅 17:3).

3. 용서하지 않는 빗진자의 비유는 조건적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4.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 장 5-15 절에 기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14 절과 15 절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5. 우리에게 죄짓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이 지침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 18:15-20)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심지어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쓴마음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 기독교인이 가슴으로부터의 용서를 가지고 있을때, 그는 그 자신이 아니라 그에게 죄지은 자를 염려합니다.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고린도전서 13 장 4-5 절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새번역)”

라고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셈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계산적인 생각들을 내려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가슴으로부터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십시오.

화냄

(Man's Anger)

해더 윌슨 토로시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 4: 6, 7 상)

누군가 당신의 차를 부셔 놓았고 당신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열 여섯 살의 소년이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 대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아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허용했던 제도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말하길 “화냄과 분노를 버리라”고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뜻은 깊으면서 상투적인 말들!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화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화내셨으니까요. 어찌 되었든, 화를 마음 속에 갖고 있으면서 위선적이 되기 보다는 사실적인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화냄에 대한 구실과 정당화를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화냄이 정말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화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이라고 말 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화가 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종종 자제력을 잃습니다: 사무실 내부가 비효율적이라든가, 내가 주차하려던 자리에 누군가 쏠살같이 끼어들거나, 남편이 방 한구석에 양말을 벗어 놓는대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다니 참 놀랍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기아 상황, 유산 문제, 전쟁, 인권 문제, 인종 차별등과 같은 좀더 의로운 것들에 대해 화 내기도합니다. 성나게 하는 것들은 인간의 지문처럼 천양각색입니다. 그러나 화냄의 요인이 무엇이든, 성정은 화냄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엡 4:2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다음 부분인 ‘죄 짓지 말며’를 놓쳐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명령 전반부에서는 강하나, 후반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본 구절은 두 번째 조건이 부가되는데, 이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냄의 허용’을 의미하는 다른 구절이 있는데 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약 1:19)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본 주제에 대한 해결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약 1:20)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화냄은 허용될 것입니다. 만일,

1. 우리가 죄짓지 않는다면
2. 우리가 죄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면
3. 하나님의 성냄이시라면
4. 의 에 이른다면
5. 더디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만일 이러한 요건에 충족된다면 화냄은 분명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다른 성경상의 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마 21 장, 요 2 장)에서 나타납니다. 본 구절은 인용어구로 사용하기에 신중을 요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의롭게 화내기는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화내셨는지에 대해 본 구절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기 다섯가지 요건 중에 네 개가 충족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화냄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그 화냄의 근원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냄이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 시간을 가지실 만큼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추측컨데, 예수님은 해질 때까지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우리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 4:16). 조금 궤변적인 사람들은 화를 방출해 버림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 할 것입니다. 막혀져 있던 화는 궤양이란 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 화를 분출해 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궤양을 받을 것입니다. 희박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화에 대한 우리의 세번째 선택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화를 하나님께 분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화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만일 그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화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화는 제거되고, 우리의 생활은 주의 기쁨 안에서 지속될 수 있으며, 아무도 궤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화냄이 제한된 환경 하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어리석음과 죄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 3:8). 또한 ‘격분’은 갈라디아서 5 장 20 절에서 ‘육적인 행위’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 29:2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 14:29).

당신의 화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눅 6:45).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맺어짐을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에 악을 갖고 있다면 넘치는 것은 악이 될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두 단계를 필히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편 139:23-24 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에 의한 ‘마음 살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 1 1:7, 9). 그리하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사라졌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사라질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케 되면 모든 종류의 선한 것들로 마음속을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것들로 채우라고 빌립보서 4 장 8 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롬 12:2).

당신에게서 모든 화를 제거하는 것이 절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자신에게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멘 (유 24).

주석: 대부분의 화냄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기 보다는 과도한 자기 사랑에 따른 반응으로 생겨 납니다. “나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접 받아서는 안돼”라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만약 당신이 격하게 화를 낸다면, 이는 비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5:19~21 에 있는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5:22~23 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격한 노함’을 갖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화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쩔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쩔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 4:6-7a)

토론과 질문

1. 여러분이 화가 나 있음을 다른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화가 많이 났던 때를 설명하십시오.
3. 에베소서 4 장 26 절은 화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성내는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약 1:20)

4. 화냄의 어리석음과 죄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8

갈라디아서: 5:20

잠언 29:22

잠언 14:29

5. 여러분의 화냄은 어디에서 연유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눅 6:45)

6.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 마음의 상태로부터 연유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쌓여 있다면, 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화냄을 제거하기 위한 두가지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화냄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화냄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공격적인 면들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도록 요청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의 길로 인도’ 하실 것입니다 (시: 139:24).

분노의 폭발

(Fits of Rage)

짐 월슨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갈 5:22-25)

나는 지금까지 여러번 매우 ‘무서운’ 분노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신실하지 않은 목사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려고 대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의 이동식 주택에 딸들을 보기위해 왔었습니다. 그는 나에게서는 화를 내지 않았으나, 곧바로 그의 아내와 한명의 딸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그가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는 돌아와서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이동식 주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년이 지나서야 회개 했습니다.

수년전에 나의 아내 베시와 나는 한 결혼한 부부를 화해시키려는 희망을 가지고 한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의 내연녀도 있었고, 그 내연녀는 광적으로 난폭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지는 않았으나, 그녀는 자동차에 화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은 한남자가 분노에 차서 우리 서점에 와서는, 그의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그의 아내를 애써 숨겼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격한 분노’는 죄성을 가진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짜증부리기’라고 부르지요. 아이가 더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우리는 골치 아픈 투로 “성질, 성질 좀 죽여, 진정하라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으로는 그 폭발되는 성질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습니다. 분노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이성을 잃음’과 ‘튀겨짐’이 여러 표현들 가운데 흔히 쓰이는 두가지입니다. 이 완곡된 표현어들은 서술적으로 설명은 되지만, 그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반을 만큼 무책임한 격한 분노를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성마름’이란 표현은 쉽게 화내는사람을 일컫는 완곡화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성마른 것을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그들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조용히 행동하거나, 그들과 부딪히지 않을 넓은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공포에 몰아넣거나, 가족들을 자신들의 분노의 불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죄성의 반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통제’를 분노의 반대말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반대말은 아닙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정당지 않고, 기쁘지 않고, 평온하지 않고, 인내심이 없으며, 불친절 하며, 착하지 않으며, 성실하지 않으며, 신사답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의 모든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분노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허용될 수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성질을 내는지를 어떤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첫째로, 화를 내는것을 정당화할 설명이나 완곡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백한 설명은 분을 터뜨린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많은 작은 죄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는 이제 커다란 분노를 폭발하도록 하는 작은 죄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래의 성경귀절이 잘 말하여 줍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 19:13).

위 성경 귀절이 예방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주시하십시오. 분노를 드러낸 기독교인은, 알고 저지르는 죄악(고범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그를 장악하도록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끔찍한 죄악 을 저지르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쏟아 놓은 모든 분노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과 회개 없이는 앞으로의 분노 폭발에 대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이 스스로의 고백은 죄를 축소시키는 완곡어를 사용치 않고 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은 분노가 폭발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알고도 저지른 죄악을 포함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 3:1-4).

골로새서의 이 교훈은 분노와, 화냄과, ‘유사한’ 다른 죄들의 예방에 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일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만이 성경귀절의 명령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명령들은 아래의 직설적인 언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다른 어떤 행동도 필요치 않습니다. 언급된 말씀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축복받는’ 곳에 머무를 때 아래의 성경귀절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 3:8)

마찬가지로, 이 명령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은 그 명령들에 복종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화냄이나 분노를 표현한 후에, 하나님이나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그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눅: 24:46-47)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9, 13)

성경공부 길잡이: 분노의 폭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토론과 질문

1. 갈라디아서 5 장 19-21 절은 주님과 의 더 친밀한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악습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귀절중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이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악습들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분노나 다른 악덕들이 정상상태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악습이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2.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갈 5:24)

분노는 죄의 본성을 가진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우리는 ‘짜증부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성을 잃음’이나 ‘뿔겨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완곡어들은 서술적입니다만, 그 행동들이 죄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갈라디아서 5 장 19-21 절의 첫번째 목록이 여러분의 삶을 잘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기도교인이 아님이 명명백백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악한 것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떤 주제나 상황이 여러분의 분노가 폭발하도록 자극을 합니까?
4. 분노가 우리안에 쌓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시 19:12-13)
5. 골로새서 3 장 8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6. 골로새서 3 장 9 절은 ‘이유’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7. 직설화법과 명령화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설화법은 예를들면, ‘갑은 을이다’ 입니다. 명령화법은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 장 24 절은 직설화법입니까 명령화법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악마같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때, 성령이 우리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안에 있는 특질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갈 5:22-23)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여러분 인생의 어떤 면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것을 주관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내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 15:4)

상처 받음

(Taking Offense)

해더 윌슨 토로시엔

야고보의 편지에 따르면, 한 사람이 그의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는 그의 모든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점은 혀를 제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때때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모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말이 상처를 주지만, 행위 또한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말조심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행동도 조심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나는 말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조심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혀를 제어하지 않는 한, 내가 당연히 상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해질때까지는, 내가 상처를 받을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까? 나에게는 이 두가지 모두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잘 대해줘서 우리가 상처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나는 공격받는 사람들이 강해지기를 제안 합니다.

아래의 성경귀절에서 의 예수님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사 53:3, 7)

우리의 누구라도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처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는 과연 1) 그들과 다시 대화하고, 2) 다시 그들에게 친절하며, 3) 그들을 용서하거나, 4)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상처 받는 쪽으로 반응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코 달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히도, 예수님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자신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결론적으로 우리는 네가지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권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2. 마음을 비우십시오.
3.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4. 겸손해 지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또한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종류의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히 12:2)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남편, 아내, 친구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서 상처를 받을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확률보다 훨씬 큼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말을 분석해 볼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부족함과 그가 도움이 필요함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의 결핍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교만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를 생각합니다.

사랑에 관한 자주 인용되는 귀절들이 고린도전서 13 장에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원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에베소서 4 장 32 절에 잘 알려졌지만 잘 실행되지 않는 귀절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 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용서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음을 고려할 때, 우리들중의 그누구도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로 들릴 것이라는 점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매번 어디엔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해지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벽을 쌓거나 어떤 다른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하면 사람이 강박해지고 거칠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강해지는것은 베드로전서 2 장 21 절 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방어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고,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한 사람이 되어서 강박해지지 않습니다.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상처 받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지지 아니하였도다...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사 53:3, 7)

토론과 질문

1.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비난받고 벌을 받은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2. 1번의 경험이 쓴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까?
3.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행을 할 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것이 가능합니까?
(빌 2:5-8)
4. 사랑의 특성을 열거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4-5)
5.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롬 12:17-21)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고린도전서 13 장 4-5 절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자라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강함과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동정심과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혀를 제어함

(Bridling the Tongue)

크리스 블라초스

수년 전 뉴욕 주에서는 자기폭풍이 발생하여 어느 전화 통화 내용이 그 근처 라디오 방송국의 송신 전파를 방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 전화 내용이 통화자 미상 상태에서 미국전역에 라디오로 방송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험담(gossip)으로 인한 죄책감을 한 두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 내에서 넘쳐나리 만큼 많은 수근거림 (gossip) 때문에 ‘기록하는 천사’는 기록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치기를 원하시는 사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3:11 에서 험담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 (험담)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또한 남자들은 이 병에 면역됐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언급했던 바와 흡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남자들은 “무정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딤후 3:3)

이 두가지 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 단어는 diabolos 인데 이는 마귀 (devil)라는 단어의 어원인 것입니다. 누가 험담과 관련된 수호신인지를 알기 위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험담하는 자’는 ‘악한 마귀의 우체부’인 것입니다. Diabolos 란 단어는 또한 ‘중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상기 디모데 후서 구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험담’을 사악한 행위를 열거한 리스트의 한 복판에 놓고서 험담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안에 있는 험담/중상을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눌 마음이 있을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네가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험담/중상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간하게 할 것입니다.

1.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의 동기는 비판을 위함이 아닐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을 진실로 돕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손상을 주기 위함인가요? ‘기도제목 나누기’라는 구실로 우리는 사실상 험담/중상을 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상의 목적이 그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좀 더 주목 받고자 함일 때 우리는 종종 험담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첫 질문에 당신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신을 합리화 하고자 한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 코멘트를 하고 그 구실을 찾고자 한다면 당신은 ‘중상’의 문턱에 와있는 것입니다.

2. 내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가?

웹스터 사전은 험담을 ‘소문 퍼뜨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문이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그 이야기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험담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알고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 당신은 예수님께 편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주님과 함께 나누고 난 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심으로써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요 21:22). 주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불편하다면 그정보는 어떤 사람과도 나누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그 사항을 남들과 나눔으로써 듣고있는 이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찰스 스펀전은 험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험담은 삼중의 독을 분출한다. 이는 말하는 자를 상하게 하고, 듣는 자를 상하게 하며, 험담에 관련된 자를 상하게 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훈계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 4:29)

위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들이 우리의 험담/중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기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도 당신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험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을 때에는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눔’이 그렇게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 글을 끝내기 전에, 우리의 생활에 악성 돌림병을 돌게 할 뿐만 아니라, 깊숙히 파고들어 교회를 파괴하는 이 사악한 습관인 험담을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험담에 대한 두가지 치유 방법이 있는데, 첫째, 퍼뜨리지 말 것! 험담이란 한 쪽 귀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예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듣지 말 것! 험담을 듣는 귀가 없다면 험담하는 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험담자에게 용기를 주지 마십시오. 들은

바에 대하여 곧바로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험담/중상을 가장 신속히 중지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험담이란 다리도, 날개도 없이 전체가 꼬리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꼬리들은 괴로움만 가져오고 인생 또는 교회의 부흥 사역에 유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안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신도들이 가끔은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겠지만, 그들에 대한 마귀적이며 전염병과도 같은 이 ‘험담’이 이 나라 전 역의 교회에서 멸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성경공부 길잡이: 혀를 제어함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1-4)

토론과 질문

1. 에베소서 4 장 29 절은 험담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 바울은 악의적인 험담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3 장 11 절과 디모데후서 3 장 3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악의적인:
험담:
3. 누가 험담의 수호신입니까?
4. 우리가 남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말하고 싶을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네가지 질문을 열거해 보십시오.

험담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해없는 험담(gossip)은 없습니다. 험담은 다리도 날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험담은 전적으로 독소를 가진 소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험담과 다른 악덕에 대한 바울의 치유법은 무엇입니까? (엡 4:31-32)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데 필요한 강함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자기 관찰 (Introspection)

짐 월슨

자기 관찰 (Introspection)이란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감정들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는 행위 또는 습관을 말합니다. 이 숙고함을 통하여 과거의 것들은 우리의 의식으로 집목되며 우리는 그것들을 집중하게 되고 깜빡이는 희미한 사색의 촛불 아래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행위 또는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거나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관찰이 종종 장려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려가 없을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관찰이란 ‘한 여름날에 밝은 태양 빛 속을 걸어가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손에 깜빡거리는 촛불을 들고 칩칙한 지하실의 계단을 내려가기’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조그마하고도 연약한 촛불은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해골들, 거미줄, 그리고 엄청나고도 소름 끼치는 것들을 희미 하게 비춥니다.

이것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여졌거나, 우리가 행했던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상상력 또한 이에 일조합니다. 내적 반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지하실로 더욱 더 깊이 쉬지 않고 들어가거나, 조사했었던 해골을 다시 반복하여 조사합니다. 촛불은 결코 밝은 빛이 아니며 이 무섭고도 섬뜩한 과거에 대해 해결을 결단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관찰’에 열중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기쁨의 근원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놀림의 한 요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울한 성격과 완벽 주의자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우울증의 주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

자기 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엄청난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치 않을거야.”

자기 관찰은 (죄를) 고소하되 깨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는 고소하는 자와 판결을내려 깨닫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는 검사이며 판결 내리는 자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유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며, 판사는 이것이 입증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 재판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판사의 무죄판결 이후에도 검사는 끊임없이 그 자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고소하는 자이며 성령은 판결하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빛

요한 1서 1:5~10에서 우리는 자기 관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및 7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이 모든 빛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깜빡이는 ‘양초불’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17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빛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죄는 ‘고소하는 힘’과 정 반대되는 ‘판결하는 힘’에 의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깨끗하게 된다면 주님과 ‘사귄다’는 자연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죄의 깨달음과 깨끗하게 함의 자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깨달음 - 깨끗하게 함-교제-순종’에 대한 놀라운 예가 여기 이사야 6:1-8절에 있습니다.

웃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1-8)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죄를 자각하게 했던 것은 자기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함’ 이었습니다. 그는 빛 안에 있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는 용서되어졌으며, 용서 받자마다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빨리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고소하는 자’ 때문인 것입니다. ‘판결 하시며 깨끗케 하시는 자’가 아닌... 고소하는 자는 어느누구도 용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감

당신 자신이 ‘자기 관찰’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의도가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거부하십시오. 그 대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시편 139:23-24 절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말고 높은 곳을 바라 보십시오. 당신은 죄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나온다면, 당신의 죄를 빠르고 완전히 깨달으면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는 ‘덮어놓는 죄’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 관찰은 과거의 죄들을 상세히 기억하게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과거를 ‘잊음’은 죄를 ‘덮어놓음’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감’은 ‘현재시제 능동형’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거나 미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깨끗하게 하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자기관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24)

질문과 토론

1. 무엇이 자기관찰입니까?
2. 자기관찰의 위험성을 나열하십시오.
자기관찰의 특이한 점은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관찰은 우울증의 근원입니다.
3. 자기관찰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요일 1:5-10, 약 1:17)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일 1:5)

4.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자기관찰에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다릅니까?
5.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에 있어서의 죄를 찾았습니까? (시 139:23-24)

다음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여러분께 행해지고, 여러분이 행했지만 창피했던 과거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과거의 죄악들을 내려 놓으십시오. 용서받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항상 죄를 깨끗하게 하므로 그 용서가 즉각적이고 완전함을 아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3-14)

부모와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Parents)

짐 월슨

저의 설교 중에 가장 열매를 많이 맺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령층에 무관하게 효과적 이었는데, 첫째는 ‘쓰마음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둘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지금 일리노이 대학 구내에 위치한 일리노이 스트리트 레지던스 홀의 공부방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바나(Urbana) '93 대회에서, 본 주제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약

50 명의 학생들이 본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충격,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이 가르침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회한의 눈물, 질문들,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날의 이 사건이 저로 하여금 이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구절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 그것들을 당신의 생애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 5:8-10)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겔 18:19-20)

신명기 5 장 9 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에서 우리는 이 대목이 공정치 않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서 18 장 전체에서 자녀들이 아비들의 죄에 책임이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5 장 8 절에서 10 절까지의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죄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선조들의 죄성이 반복되면서 수대에 걸쳐 흘러 내려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를 걸치는 악영향입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9 절에서 끝나지 않고 10 절에서 계속되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 대’라는 단어는 ‘삼 사대’와 대조해 볼 때, 실제로 ‘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천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 그렇게 보는 것만이 문맥상 이치에 맞고 둘째, 두 장 이후에 그 의미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 7:9)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증오하는 행위는 삼 사대까지 하락이동을 하며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천 대까지 상승이동을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로 다짐 했었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했으며,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 부모님이 살아왔던 그 삶처럼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이 세습이 바뀌려면 아직도 두 세대를 더 기다려야합니까?” 아닙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당신은 두 세대를 더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만으로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와 자식간에 자제력을 잃어도 되는 장소 중의 하나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B.C. 400 여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부정적이며 조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6)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 1:17 에서 이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눅 1:17)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양 방향, 즉 나의 부모와 자녀를 향해야 함을 주목하십시오. 비록 내가 말하는 대부분의 실례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자녀들에 관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나는 부모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부모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향해 돌리십시오.

십계명에서 두 번째로 ‘세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 5:16)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함 (신 5:9) 2. 하나님께 순종함 (신 5:9) 3. 부모님을 공경함 (신 5:16) 4.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향함 (말 4:5,6)

우리가 십계명의 상기 두 구절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삼사 대’에 속할 수 있으며 (신 5:9),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엡 6:1~3). 또한 그 땅은 저주의 고통으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저주를 끊으며, 2. 우리를 이 땅 위에 오래도록 살게 하며, 3. 삼 사대에 대한 저주를 천 대에 대한 복음으로 전환시킬 ‘마음의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돌아선다(회심) 함에는 매우 중요한 몇가지 사항들이 있으나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들은 회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 만으로 저주가 자동으로 풀린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1. 그리스도인이 됨: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그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2. 그리스도인과의 결혼: 그리스도인다운 결혼이 아니면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결혼상태의 유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나니 ...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전 7:10~11)

이 세가지가 없을 경우 당신은 더욱 나빠진 세대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세대에 저주는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이전 세대들이 아직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과 아내에게 충실한 것이,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또다른 저주의 세대가 있을것이고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좋은 남편이 되는 것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하여 당신은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행위로 아버지의 권위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이 네 가지 각 요소가 담겨있는 편지를 그에게 쓰십시오. 각 단락마다 한 요소만을 다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당신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 행했던 예전의 반항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면 또한 지상의 아버지께도 인정하십시오. 단, 비난이나 변명은 금물입니다.

2. 이 서신에서 당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가를 말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를 존경치 않는다면, 당신은 위선자가 되지 않고서는 존경의 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필히 그렇게 써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아버지에 대하여 가졌던 비 존경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합니까? 그는 존경 받을 만 하지 않은데요”라고 당신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너의 아비와 어미를 공경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들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의 아버지이므로 그는 당신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죄란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 존경심’ 또는 ‘존경심의 부족’을 당신이 회개하였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난 이후, 이제 당신은 실제로 그를 존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를 존경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신이 물을 수도 있겠지만 존경이란 존경받는 자의 ‘존경받을 만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가지 요소 즉, 존경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유지되는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모님 존경에 있어서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당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는지를 말하십시오.

3. 세번째 단락에서는 당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선 당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당신의 아버지는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땅히 당신을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당신은 세월을 거슬러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문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었어야만 했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성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용서로의 접근이 무한하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접근할 길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은 지극히 높습니다. 당신은 한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사랑 결핍’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 결핍’이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이 카테고리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 및 성경에서 말하고있는 ‘순종과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 당신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랑에는 표현이 요구되므로 이 단락에서 그에게 말하십시오.

4. 다음 단락은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할 곳입니다. 당신이 감사 하지 않는다면 존경과 사랑의 경우처럼 이는 당신의 문제이지 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감사의 표현 과정은 언급했던 두 요소들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감사치 않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 4 가지 요소들은 필히 요구되는 것들이며 다음 두가지 제안들은 ‘존경’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입니다.

1. 그의 인생에 대하여 들려주기를 아버지께 부탁하십시오. 또는 자서전을 쓰시도록 권하십시오. 그가 쓰실 의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함을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2. 일반적인 문제든 특별한 문제이든 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부탁하십시오. 이는 그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상황을 바꿔서 어머니에게 같은 편지를 쓰십시오. 첫 번째 단락에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두번째 단락에서는 존경을 전하십시오. 인류의 개개인은 사랑과 존경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랑과 존경은 남녀 모두로부터 오는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할 것은, 사랑과 존경이 함께해야 하지만, 여성에게는 사랑이 존경보다 우선이며, 남성에게는 존경이 사랑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존경은 받기를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여타 짧은 글, 껴안음, 그리고 신체적 표현 (예: 악수)등과 함께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명과 비난이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그 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아빠,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서투르시다는 것도요. 나는 자라 오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중학교부터 대학시절까지 왜 그렇게 악동이었는지 아빠는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부친 애정결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아빠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를 찾아 뵈려 드릴 저의 포용으로 당신은 놀라실 거예요. 비록, 저는 저의 남편과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빠 또한 저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아빠를 껴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펄펄 솟아지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붓습니다.” 이 예를 당신에게 맞도록 조정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이 두통의 편지를 받았을 때 몇 가지 상황이 필시 일어날 것입니다:

1. 이 편지는 한번 이상 읽혀질 것입니다.
2. 이 편지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3. 당신은 호의적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응답 받지 못하였다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주는 행위를 계속하십시오. 어떤 문화권에서는 화내는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북유럽 문화권). 당신의 이러한 표현으로 당신의 부모는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표현된 사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이 ‘표현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어느 한 남성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분이 너의 편지를 보는 순간 나는 6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중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음을 처음으로 보았다”

1980년대 초기에 우리는 아이다호 대학의 델타하우스에서 ‘실천신앙’이라는 여름학교를 진행했고 약 4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제 중에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워싱턴 주립대학에 있는 ‘정오 성경공부 모임’에서 나는 같은 주제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역주: 워싱턴 주립대학과 아이다호 대학은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자 윌슨 목사님은 두 대학을 대상으로 학원 복음화 및 문서 출판 사역을 해 오시고 계시다.)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여름 델타 하우스에서 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가 열 여섯살 되던 해, 아버지는 저를 발로 걷어차며 집 밖으로 쫓아내시고는 다시는 나를 보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과 결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주립대학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입니다. 저는 한 동안 아버지를 대면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서로

다른 침실을 사용하셨으며 거의 이혼 상태에 이르렀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배웠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각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각 편지를 쓰는데 여러날이 걸렸고, 그 편지들을 며칠 간격을 두고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편지들은 동시에 배달되어졌고, 부모님은 모두 집에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내 편지를 읽으셨으며, 읽고 난 후 두 분은 편지를 교환하여 다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읽으셨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방을 나왔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비행기로 풀만(위싱턴 주립대학 소재지)에 가서 나의 아들을 만나야겠어”라고 하셨다 합니다. 저는 지난여름 이후 아버지를 뵈고있으며 저의 부모님은 이혼의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첫 째는 마음의 문제인데, 당신의 ‘사랑치 않음’, ‘존경치 않음’, ‘감사치 않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안에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용서를 받지않고 이 편지를 썼다면 이는 곧 당신의 편지가 가식적이며 위선적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반응을 보이기를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됩니다.

당신이 회개를 통하여 깨끗케 된 이후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전화함과, 방문과, 존경표함과, 사랑과 감사를 지속하십시오.

이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훌륭한 남편, 아들, 아빠, 그리고 더욱 훌륭한 아내, 딸, 엄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순종이 천대의 자손까지 사랑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부모와의 관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 5:8-10)

토론과 질문

1. 신명기 5 장 8-10 절은 우리의 조상의 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신 5:10)
3. 조상의 죄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까?(말 5:5-6, 눅 1:1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4.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켜 향하게 합니까? (신 5:9, 신 5:16, 말 4:5-6)
5.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삼 사대의 저주를 천대의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단계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여러분 혼자서는 버릴 수 없었던 쓴마음과 화냄을 반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쓴마음과 화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와지도록 회개하십시오. 그런 후에 본문에 언급된 네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 7:9)

포화된 사랑

(Saturation Love)

짐 월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관한 여러 계명들을 받았습니니다. 이들은 아내와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적들에게 까지도 행해야 할 계명들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것은 희생이며,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고안 되어졌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사랑에는 대상과 표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주셨으니...’(요 3:16)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며 사랑의 표현은 ‘주셨으니’입니다. 이 사랑은 반쪽 마음의, 주저하는, 또는 거의 충분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과 죄인들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

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이나, 제한이나, 억지로 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랑에 너무나도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사막에 물 붓기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당신에게 매달려 더 많은 사랑을 구하고, 당신은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만족해 하기도 전에 당신의 사랑이 동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정말로 동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에 의해 거듭 채워진다면 당신의 사랑은 결코 동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자녀 양육에 적용해 봅시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성서적 원리의 이해와 적용을 요구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1. 순종의 결핍
2. 불순종에 대한 효과적인 훈육
3. 효과적인 훈련 및 가르침
4. 자녀들간의 대립 및 질투
5. 떼쓰기, 울기, 짜증내기 같은 관심 끌기 수단
6. 큰소리로 말하기, 사마귀, 비만, 할퀴기, 물어뜯기, 걷어차기, 신체부위 잡아뜯기, 습관적 손놀림 등의 불안 증상들.

각각의 제목들에 관하여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설명이 필요하며, 이들에 관하여 많은 책들이 실제로 발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책들의 내용을 적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해 본 결과 효과가 없어 그 책들이 옳지 않다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합니다. 하지만, 책도 옳았고 당신의 적용도 옳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포화된 사랑(Saturation Love)’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포화된 사랑은 적당한 사랑, 가치있거나 많은 시간의 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위의 두가지 가치있거나 많은 시간의 관심과 더불어, 완전히 집중된 관심을 포함합니다. ‘포화’란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화 용액’이란 용매가 용질을 더 이상 녹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컵에 설탕을 계속 부으며 짓고 있다면 그 물은 결국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설탕을 넣어도 물에 녹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포화점 이후에 첨가된 설탕은 모두 컵 바닥에 퇴적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녹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포화된 상태에 이르게 하여 그가 더 이상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수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95%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항상 100%는 아니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하기를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적당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단지 절반만이 손 든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 부모님이 그들의

사랑을 당신에게 적당히 표현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녀들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일 수 있었나요?” 모든 손은 든 채로 남아 있습니다.

1. 사랑의 부재
2. 약간의 사랑
3. 적당한 사랑
4. 더 많은 사랑에 대한 욕구

적당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누가 물어 본다면, 마지막까지 손들었던 사람들의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있지 않다”고 답변 할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녀의 불순종입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당신의 부족한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있다면 불순종으로 인한 훈육(징계)은 설령 그것이 옳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내가 관심을 얻었을 때는 바로 매 맞을 때였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는 불순종을 관심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이를 혼란시키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간의 대립, 경쟁, 이기심, 시기심, 이 모두는 당신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과 반비례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아이들 모두가 사랑으로 포화되어 있다면 자녀간의 대립, 사소한 말다툼, 싸움 등이 극히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는 좀 더 일찍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롬 2: 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친절함을 쏟아 부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이상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징징거리는 아이를 껴안아주거나 관심 가져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못된 행위를 지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아이를 껴안아 주는 것은 못된 행위를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것입니다. 안아주고 관심 가져줌으로써, 아이의 요구명령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실재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 아이의 실재적 필요는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사실적인 것입니다. 징징거리는 아이는 단지 당신의 관심-사랑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울 때 우리는 아이에게 관심을 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지저귀가 젖지도 않았고,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우리의 조그만 사랑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두 살이 되고, 세 살, 아홉 살, 또는 열 살이 되어 관심을 원할 때 우리는 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사랑과 관심을 원한다면 그 아이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사랑으로 포화되어질 때, 그는 그의 요구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관심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요구하는 아이들보다 사랑을 적게 받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한 상태라고 생각 할 수 있음을 고려하십시오.

우리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요구가 바닥나기 이전에 벌써 우리의 주는 행위가 바닥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관심끌기를 결코 그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쳐야 할 시간 이전에 사랑주기를 그쳐 버리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관심주기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의 요구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녀들이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수년 전에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왼 손과 왼 팔에 사마귀가 매우 많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열여덟 개였고 수개월 동안 나 있었습니다. 어느날 하루는 아빠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존, 사마귀를 없애지게 해달라고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해줄까?” 존은 “아니요, 개들은 내 친구들이에요. 나는 그들과 함께 놀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이 사마귀들이 아이의 불안의 증거였고 이 불안은 자신이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결심하고, 크나 큰 사랑의 관심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사마귀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년 전, 나와 가깝게 지내던 젊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살 된 아이 및, 두 살, 세 살, 네 살 짜리 남자아이들 네 명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첫째 아이의 문제로 나와 면담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도저히 고쳐줄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첫째, 동생을 온 종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큰 소리로 꾸중하거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두 가지 모두를 함으로써 그를 혼욕하였습니다. 둘째, 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쪼아서 얼굴은 작은 상처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합니다. 흡사 홍역에 걸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엉덩이를 때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의 질문은 간단 명료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였습니다. “첫째애가 동생들을 때릴 때면 그 아이를 들어다가 껴안아 주십시오.” 어머니는 “글쎄요, 그 아이의 못된 행실을 부추기고 싶지는 않은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자기를 ‘안아 줌’의 의미를 곧장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동생들을 때린다면 하루종일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셋째, 넷째 아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관심 받을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때린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쪼은 것도 역시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과다할 정도로 사랑을 퍼부어 준다면 2주 이내로 그 아이의 얼굴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동생들도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지요?” “이젠 그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 부모는 그들의 죄를 고백했으며 께안아주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은 아주 활동적인 12살 짜리 아들을 둔 아빠가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조그마한 실수에도 아빠로부터 강도 높은 꾸중과 훈육을 받았던 아이였는데, 속만 상할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상당한 사랑과 관심과 시간을 그 아이에게 주었지만 그는 부모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거듭 매를 때려도 자신을 고치려 하지도 않았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지나치게 쏟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늘이는 반면에 계속했었던 사소한 일에 대한 충고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성 수양회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두시간 거리인 장소까지 아들을 팔로 안고 있었으며, 도착한 후 설교 시간에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 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충고를 뼈죽거림 없이 받아들여려고 했고, 또래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욕구를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십 수년 동안 학생들과 지내오면서 많은 세미나를 해왔는데, 그 중 매우 인상에 남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도,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도,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자신도 그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인정치 않으십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이미 집을 떠난 아버지 중의 일부에게 실제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날 동안 당신이 포화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신들 중 나머지 일부는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약간은 ‘사랑스럽지’ 않은 십대 자녀를 두고 있겠지요.

당신이 부모로서 해야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첫째로 무리한 징계, 창피주기, 조롱하기, 무시하기, 고함 지르기, 화냄, 편애, 사랑표현의 결핍 등과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을 편지로 쓰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과 태도들을 하나님께 당신이 고백했음을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들, 즉 아이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인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픔을 아직도 느끼고 있듯이, 아이들이 아직도 느끼고 있을 아픔들을 당신에게 말해주도록 그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들이 말할 때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으로 미안해 하고 슬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후 7:10). 그런 후, 당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날 필요는 없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편지를 쓰십시오. 이 편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당신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방해받지 않고 표현 할 수 있고, 둘째, 그 편지는 여러번 읽혀질 것이며, 셋째, 그 편지는 보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아들, 딸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 모두로부터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혼하셨다면 포화된 사랑을 주는 것이 더욱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랑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쟁적으로 아이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기 위해 헤어진 남편/아내를 깎아 내리거나, 아이들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포화되지도 못한 사랑일 뿐더러, 전혀 사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배우자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은 불안정의 주요 요인 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아이들 면전에서 배우자와 싸우거나 말다툼 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당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싸우기를 포기하십시오.

* 아이들은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후 이것을 익혀간다고 합니다. 이 죄의 본능은 불순종의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뀌게 됩니다. 영접 이전과 이후의 불순종은 부모의 사랑의 결핍에 의해 영향받습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포화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토론과 질문

1. 왜 사람이 사랑에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지, 그이유를 열거 하십시오.

포화된 사랑은 적당한 사랑, 가치있는 시간 또는 많은 시간의 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포화는 최대치가 이르도록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포화된 사랑은 필요한 사랑이 완전히 충족된 것을 의미합니다.

2. 포화된 사랑을 받았던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포화된 사랑을 주었던 경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3.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친절을 쏟아 부어주시고 관용과 인내를 보여 주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로서의 본보기입니다.

4.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로서의 본보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5.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10)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회개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이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바꾸어 주시도록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절하고 인정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 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여성의 안정

(How does a Woman Become Secure?)

짐 월슨

여성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안정을 보장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들로 인해 여성은 사랑과, 보호와, 안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의 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여성이 부모, 남편, 자녀, 식량, 그리고 음식과 의복을 잃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객관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그녀는 불안해질 이유를 갖고 있으나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여성이 주관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객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여성이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무척 강해서 그녀는 그 느낌이 객관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녀에게는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성이 이를 채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그 부족함의 정도가 큼으로 인하여 그녀가 얻게된 남성도 이를 채워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남성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 줄 여성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하며

불안정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이제 여성은 더욱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아기를 갖게 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아기를 갖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또한 부분적으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불완전하며 사랑과 관심을 끊임 없이 요구하는 생명체입니다. 이제 이 불안정된 여성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더욱 큰 요구를 받게 되는데, 특히 여러명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더욱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제 그녀는 불안정하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녀는 좀더 좋은 집에 좋은 가구들이 있으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일하게 되고 그 결과 그녀는 피곤하고, 불안정하며, 기진맥진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대체물이 옷과 음악과 파티가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어떤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생활 초기부터 무관심의 자세를 보여 왔었으니까요.

이 예는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몇몇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 몇 명은 한 번 이상 결혼했던 경력이 있었고, 몇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자녀와, 집과, 파티들이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으며, 그들이 찾고있는 안정이 그것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소 늦게서야 깨닫고있는것입니다.

이 필요는 충족되어야 하지만, 충족을 고집하던 이기심은 이제 남편과 자녀, 집, 재산을 그녀가 얻는다고 해도 충족되어질 수 없다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바로 이 이기심이 먼저 없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기심은 그녀의 영혼에 있는 딱 쥐어진 작은 주먹인데, 이 이기적이며 작고도 딱 쥐어진 주먹이 그 사람을 멸망케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기심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것을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진실로 이를 버려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의 자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리스도안에서 안정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성의 안정감은 여성과 그의 부모사이, 형제, 자매, 친지들 사이의 친밀성으로부터 옵니다. 다음으로, 안정감은 그리스도안에서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데, 그들은 사랑하기 원하며 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기를 원함으로써 안정감은 오게되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미래의 남편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여성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허상을 갖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로써 사랑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조건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가한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은 온유한 대화, 포용, 베풀어주며, 도와주는 행동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4, 15)

여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건하며, 사랑스러우며, 온유하며, 기쁨에 넘치게 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스런 가정과 사랑스런 자녀와, 손자손녀를 가지며, 준비된 자로서 ‘착하고 신실한 중’이 되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그 여성이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자입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과 모든 인류의 ‘안정감’의 시작입니다.

성경공부 길잡이: 여성의 안정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토론과 질문

1. 안전과 안정감에 대하여 다음의 성경귀절들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12

시편 4:8

잠언 29:25

요한일서 5:18

2. 만족감에 관하여 아래의 성경귀절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잠언 30:15-16

전도서 5:10

시편 63:5

시편 103:5

이사야 53:11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 2:3)

3. 어떻게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 합니까?
4. 안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이 필요합니까? (약 3:13-18)

다음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닮아 가고자 했던 여러분을 방해한 쓰디쓴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와 식별력을 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마 7:7-8)

책임감 있는 남자

(The Responsible Man)

짐 월슨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남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큰 하나의 약점은, 충실함의 문제입니다. 충실함이란 정직함, 도덕적 건강함, 순수함, 올곧음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 나는 충실함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책임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서 당연히 기대되어야 하는 인성입니다. 책임감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왕들, 지도자들, 주인들, 남편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든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에 언급한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로 가는 훈련과정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성인남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폭력, 폭음, 운동, 사냥, 육체노동, 섹스능력, 그리고 권위 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남성성을 찾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세상적으로 강조되는 남성성은 남자들로 하여금 남성성의 진짜 증거인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은 창세기 3 장 12 절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2)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창세기 3 장 17 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7)

남자들은 그후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상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람 또한 무책임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창 12:11-13)

아브람은 그의 아내를 뺏기위해 이집트인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가 그의 여동생이라며 거짓말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집트왕 바로가 사래를 취했고, 아브람은 잘 대접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후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이 닥쳤는데, 이는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를 그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를 알았을 때, 그는 사래를 돌려주고 아브람을 애굽에서 쫓아냈습니다. 약 20-25 년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된 아브람은 다른 나라에서 또다른 왕에게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거짓을 하도록 사라 (하나님께서 사래를 사라라 부르라 하심)에게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래를 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결혼한 여인 사래를 취하면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사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래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0 장에 아브라함의 무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책임감은 이삭에게도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의 여동생이라며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자들의 무책임감에 대하여 꾸짖었습니다. (창 26). 사라와 리브가는 약했고 순진했습니다.

무책임은 특별한 종류의 죄악입니다. 무책임은 다른사람들, 즉 약자나 순진한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죄악입니다. 무책임은 거짓과 같습니다. 무책임은 숨기는 것이며 자기방어의 수단이고,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이 무책임을 아버지임을 부인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 남을 비난함, 아내구타, 욕설, 부양하지 않음,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보호를 하지 않음 등입니다.

다음은 성경상에 나타난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몇가지 예입니다.

- 왕의 신하: 요한복음 4 장 46-53 절
-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 장
- 빌립보의 간수: 사도행전 16 장
- 사도바울: 고린도전서 9 장, 고린도후서 8 장

책임에 관한 또 다른 예는 민수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민 30: 5-8). 이 내용은 여러분의 집에 거거하는 여인들인, 여러분의 부인이나 딸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뻔해야 뻔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와 책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권위적이어서, 무리의 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의사대로 행한 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숨거나 다른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그 아이는 즉각적으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들을 역사속에서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봅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는 두 미국 대통령들의 차이점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재임시절에 이세상의 그누구 보다도 큰 권위를 가졌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권위를 가졌었고, 사용했고, 그리고 또한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되자.’ 그는 책임회피를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그의 권위를 사용했지만, 망설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다른이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고결함으로 놓고 볼 때에, 클린턴은 좋은 남편도, 아버지도, 주지사도,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인 남편이나, 아버지나, 목사나 세상의 지도자 모두는 우두머리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 **남편들을 위한 가르침**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엡 5:25-30)

- **아버지들을 위한 가르침**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 **상사들을 위한 가르침**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엡 6:9)

- **장로들을 위한 가르침**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벧전 5:1-4)

여러분은 하급자를 엄하게 다룸에 대한 가르침이 없음에 주목하고, 남편, 아버지, 상사, 그리고 장로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남자들의 책임중의 하나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책임감있는 기독교인 남자의 속성을 인식하십시오.
- 여러분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들을 고백하십시오.
-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십시오.
-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모델을 따라 하십시오.
- 책이나, 녹음기나, 비디오를 통하여 책임감있는 사람에게서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위에 언급되었던 죄들 중에 포함되는 어떤 죄나 혹은 유사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원함을 말하십시오. 이 책자의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편(The Gospel)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하나 구하여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아래와 같이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죄를 세세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고백한 뒤에 그 죄들을 여러분에게서 떼어내 버리고 죄와의 인연을 끊어 버리십시오. 그 죄들을 하나님앞에 회개하셔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심을 입으십시오 (요일 1:5-10).
2.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행한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3.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적, 경제적 안정을 주시고, 사랑, 안전, 보호, 위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4. 만일 당신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고백하신 후에,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본을 보이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5. 성경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공부하십시오.
6.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편지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질문들과 그에대한 답변들)

1997년 어느때 쯤, 한 여성이 ‘쓰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디에선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심히 마음이 상한 상태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 내가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난 그녀의 편지와 나의 답장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녀의 허락을 받은 후에, 그녀와 유사한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사십부를 복사했습니다. 그당시 여러번 그일을 하다보니, 무려 천부가 넘게 복사본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 복사본이 만부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왕래된 편지들을 이 소책자에 포함시킵니다. 이 편지들이 그녀와 유사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일 편지

월슨 목사님께,

이렇게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목사님께 제가 원하는 바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저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어렵습니다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비록 누구에게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기도도 매일 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중국 사역에 관한 책도 읽었고, 기독교 기초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들과 전화상으로 시간을 허락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아는것이 거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읽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혹은 무엇인가에 의지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당황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귀절들을 기억하려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은 자연스럽게 못하며, 어린아이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책값을 보내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무엇을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다른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남을 도움으로써, 이 빛을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가르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대로 목사님께 “제가 이제 진리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비키드림

9월 18일 답장

비키씨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신실하심과 상세한 내용에 감사 드립니다. 편지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으셨더군요.

1. 저는 아직 노력중입니다.
2. 저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믿음과 신앙입니다.
3. 제가 아이처럼 유치하게 여겨집니다.
4. 공짜로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5.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번과 5번에 대해 대답하자면, 대답은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을려고 노력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비키씨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당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누군가 다른이에게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누군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것입니다. 비키씨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조사하는 것을 이제 그만 두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믿음직하고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2번에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 크고 강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신앙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비키씨의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은 노력과 연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3번에 대한 답은 다음 성경귀절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3-4)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 18:16-17)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린애다운 것이 더 낫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4번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값없이 주는 이유는 천국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키씨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6:23)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롬 6:23)

디도서 (3:3-7)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3:3-7)

또한 요한 복음 (1:1-4), 히브리서 (1:1-4), 골로새서 (1:13-20) 를 읽으십시오. 이 성경구절들은 두가지의 기본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것과 모든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가 속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2.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5:6-8), (4:24-25) 를 읽으십시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사 복음서는 기독교 기본서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읽으면서, 단지 믿음에 따르십시오. 성경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 으로부터

월슨 목사님께,

목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이젠 많이 이해가 됩니다. 많이 노력했었으나,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고, 실은 더 나빠졌었습니다.

저는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기적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이어서, 읽고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겠고, 모든것을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사건이 저의 온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목사님의 편지와 전화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편지 드렸던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가진 그 무엇을 갖고 싶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목사님을 뵈 적은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하시는 분이라는것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것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아이처럼 쭉스러워지지만, 목사님께서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화요일 부터, 요한복음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키드립니다.

10 월 9 일 답장

비키씨에게,

답장에 감사드립니다. 편지에 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셨지요. “저는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기적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믿고 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이어서, 읽고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 하겠고, 모든것을하나께 맡깁니다. 이 사건이 저의 온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말씀 드렸듯이, 아마도 비키씨는 너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는 대답을 기다려야 함으로, 제가 추측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 아마도 비키씨는 읽을때 공들여 읽는것 같습니다.
- 기도를 할때, 너무 열심히 기도 합니다.
- 구하실때, 너무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비키씨는 공들임, 열심, 열정이 번개치듯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하리라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도, 비키씨는 자신이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커다란 성장이 있을시에도,

그 성장은 비키씨 자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키씨의 성경 읽음, 기도, 구함, 변화, 성장, 낮아짐이 본인 중심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안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1-5)

제생각에는 비키씨께서는 잡고자 하시는것을 ‘너무 팍 잡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잡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 장사 지내지심과 부활 입니다.

제가 언급드리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1. 하나님의 신성하심
2.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의 비키씨의 죄성
3. 비키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심 (롬 5:20)

비키씨 자신의 인간적 믿음안에서 믿음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말고, 애쓰없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눅 18:13) “나의 구원과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성경 귀절에서 인생에 있어서의 다음의 증거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14)	기독교인에 대한 사랑
요한일서 (2:3)	복종
고린도전서 (2:14)	깨달음
갈라디아서 (5:19-23)	성령의 열매
요한복음 (5:24)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히브리서 (12:5-11)	징계

이같은 것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에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만일 비키씨의 삶에 위의 성경말씀과 같은것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비키씨가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 으로부터

10 월 12 일

비키씨에게,

오늘 오후에, 마가복음 10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비키씨도 두개의 이야기를 읽고서 비교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 장 17 절 부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이고, 46 절부터는 소경 거지 바디매오의 이야기입니다. 읽은 후에 아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	소경 바디매오
부자	구걸
걸어다님	앉아있음
건강함	소경- 겹옷을 버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섯개의 계명 (예수님 말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
다 지키었나이다 (부자청년 대답)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매오대답)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예수님 말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
슬픈 기색으로 떠나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첫번째 부자청년은 그가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할 수 없어서 슬프게 떠나갔고, 두번째 사람은 그가 할 수 없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100%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키씨가 바디매오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 으로부터

10 월 19 일 편지

월슨목사님께,

지난번 편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자유를 얻은 기분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저에 대한 모든 추측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제안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의 삶에 들어 오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향으로 저를 이끄시기를 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중심이지만, 점점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만 두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을 이해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만, 이로 인해 제가 성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과 소경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부자 청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저의 생존본능이 고난을 극복하고 말그대로 살아남게 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생존본능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견디어 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견디어내는 저를 항상 경외의 눈으로 봐 왔습니다. 제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홀로 그러한 일들을 견디어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셔 왔습니다. 이제 되돌아 볼때에 저는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인생에 가졌던 고통은, 목숨을 끊게할 정도의 것이었으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한발 한발 내디디면서,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면서 삶을 지속해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느꼈으며, 나보다 더 험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많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웃으려고 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할 수 있었지요.

매일 매일, 저를 위해 그의 아들에게 그 고통을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지켜 보셨던 하나님의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열심이어서, 하루에도 백번씩이나 제 삶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배울 것이고, 그분께서는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편지들을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만나 뵈 날이 오겠지요. 편지 쓰시고 전화를 걸어주시는 그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는 너무 놀라와서 압도되는 기분이 됩니다. 또 너무 명확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월슨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저를 돕기위한 도구로 사용되셨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른 많은 사람도 도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면, 저도 남들을 돕게 되겠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키 드림

10 월 24 일 답장

비키씨에게,

비키씨의 19일자 편지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짧게 답장을 쓰겠습니다. 우선 비키씨가 쓴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의 삶에 들어 오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향으로 저를 이끄시기를 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열심이어서, 하루에도 백번씩이나 제 삶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비키씨는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루에 백번씩이라도 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루에 백번씩 구하지 마십시오. 한번도 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신다면, 그렇게 자주 자주 구함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일생에 있어서 한번 이상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혀 구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아래의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를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생기는 일들에 관한 성경 귀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복음 10장 28-3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의 뒷부분, 31-39절을 읽어보십시오. 구하기를 멈추십시오!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루에 백번이라도 하십시오.

또 다른 비키씨의 편지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자유를 얻은 기분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비키씨에게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선물의 값은 지불되어질 것이고, 그위에 당신의 이름이 씌어져 포장되어질 것입니다. 비키씨는 일일이 선물 주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선물을 요구할 것입니까? 백번씩이나 부탁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키씨는 피하거나, 선물을 받지 않거나, 뜯어보지 않거나, 그자리에 둔 채로, 무시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키씨의 구원은 구매되어졌고, 지불되어졌고, 그위에 비키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21절 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17-21)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그저 받으시고 감사 드리십시오.

저에게 비키씨의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키씨는 자신이 살아남은자이고, 포기하지 않는자임을 제가 충분히 알만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키씨는 더 좋아졌습니다. “왜?” 를 잊으십시오. 만일 답변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답변이 적절한 것인지 비키씨가 알 수 있을까요? 방이 어두울 때 우리는 ‘어떻게’ 혹은 ‘왜’ 전기가 작동하는지를 불을 켜기 전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비키씨는 태어나기 전에 뇌와 심장, 신장이 어떻게 혹은 왜 기능하는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태어나기를 거부하지는 않았습시다. 태어나기전부터 생리학박사가 되어있기를 우리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은 나중에 대담되어지거나, 혹은 아마도 비키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 으로부터

11 월 1 일 편지

월슨 목사님께,

월슨 목사님께서 제 인생에 관여하셨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행운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편지는 제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의 편지를 읽을때마다 제 지식의 부족함에 당황하곤 합니다. 목사님의 통찰력이 매우 정확합니다.

이번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것입니다. 어찌면 내일 아침부터 요한 계시록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년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출석할 교회를 찾는 일을 관여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정을 내릴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브렛에게 그가 할 수 있다면 제가 세례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세례의 전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만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저의 종교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교회에 편지를 써서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알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남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저의 대부 대모는 당황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로 부터 연락을 받게 됨이 좀 재미있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목사님께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 저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저는 서른 다섯살이고, 결혼해서 두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남편도 저도 두번째 결혼한 것입니다. 저의 남편은 첫 결혼에서 두 아이를 두었으나 모두 희귀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막내를 이년전에, 그리고 첫째를 오년전에 저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족에게 대단히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웠고, 특히 제 남편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쓴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말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의 딸들을 그렇게 오래 힘들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목사님께 말할 것입니다. 매일 매일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겐 불가지론자인 두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대학생이고, 다른 아이는 중학생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저의 엄마는 알콜 중독자였습니다(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자랐을때,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열여섯살 때, 첫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의 삶의 나쁜선택들(마약, 술, 나쁜남자)로 인해 저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제 나이 스물 한살이 되었을때(이미 매우 나이든 여자처럼 되었음), 마약을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임신했고, 결혼했습니다(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유타주로 이사왔고, 곧 이혼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딸의 아빠와(아들의 아빠는 이미 죽음) 친구 사이로 알고 지냈습니다. 저의 딸과 딸의 아빠도 만나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저의 현재의 남편을 포함해서). 저의 딸의 아빠는 이년전에 저의 현재 남편의 딸이 죽은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제 삶에 있어서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애씀,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볼 때, 제 자신은 매우 운이 좋았음을 깨닫습니다. 제 직계가족중에 아무도 저 만큼 운이 좋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 합니다. 제가 누리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를 저의 아이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해왔고, 저의 아이들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을 탐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느꼈던 그 공허감을 그대로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인한 미소를 짓습니다(전에는 저의 미소와 농담이 가식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때에 도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남도록 도우셨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알고 매일 매일 그를 알아가며, 제가 얼마나 행복한 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것없이 공짜로 사랑받는 첫 경험입니다. 예전에 제가 받았던 사랑은 조건적이었거나, 최소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가 한번 저를 방문했던 것만 기억할 뿐, 저는 누가 저의 친아버지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를 알지 못했지만, 저는 저의 친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4년 전에 죽었는데,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삶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도와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안에서의 자매, 비키로부터.

12월 11일 편지

월슨목사님께,

한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답장이 기다려졌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지난 두주동안 저는 무척 우울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서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다가,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그전과 같이 매일 매일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밤에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울함이 다시 엄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목사님께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마음을 안정 시킨후 성경을 읽으려 합니다.

일년중 이 시기가 저에게는 늘 힘든 시기입니다. 금년에는 좀 달랐으면 하는데, 제생각에는 그것이 저한테 달려있는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그럴수만 있다면, 제 삶의 모든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지요.

조만간 제가 운전해서 목사님이 계신 곳에 가볼까 합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밤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직접 간다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은자들은 부활하기 전에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부활은 여러번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저는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즐거운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12월 16일 답장

비키씨에게,

편지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비키씨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옳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안에 기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민하셨던 것의 어떤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만, 죄의 고백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관한 카세트테이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글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 사이에, 요한일서 1 장 5-10 절을 읽으십시오. 여러번 읽으십시오. 그 구절들을 읽은 후에, 긍정적인 옳은 진리는 홀수 절에 있고 부정적인 나쁜 진리는 짝수 절에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5 절을 바탕으로 7 절과 9 절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6, 8, 10 절은 행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되, 알고(know) 라는 단어를 찾고, 표시를 하면서 읽으십시오.

이제는 질문하신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죽은 즉시 육신없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은 여기에 남게 됩니다. 아래의 빌립보서 1 장 21-24 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 1:21-24).

또 고린도 후서 5 장 6-9 절을 읽으십시오.

2.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세상으로 오실때에 일어납니다. 다음의 데살로니가전서 4 장 13-18 절을 읽어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3-18)

또 고린도전서 15 장 47-54 절을 읽으십시오.

3.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하신후에야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의 빌립보서 3 장 20-21 절을 읽어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 20-21)

또한 요한일서 1 장 1-3 절, 디도서 2 장 11-14 절, 로마서 8 장 22-25 절을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짐 으로부터

복음

(The Gospel)

본책, 쓴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읽으면서, 아마도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님을 깨달았을 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엄청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쓴마음은 많은 다른 죄들과 그리고 죄를 향해 있는 본능과 얽혀 있을 것입니다. 이 쓴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선, 새로운 본성을 필요로하고, 낡은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1. 죄의식과 죄에 대한 판단, 죄의 힘에서 벗어나고자 해야 합니다.
2. 죄에서 벗어나고자 함에 있어서 당신이 무기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3. 착해지는 것과 악해지지 않는것, 그리고 당신자신의 어떤 노력도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4.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 예수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죄로부터 옮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롬 5:6)

5.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후 삼일 후에, 주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6. 성령께서 지금 당신을 죄로부터 떠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당신을 이끄십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심과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심과, 당신에게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용서 받음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지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이나 혹은 작은 책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소책자를 읽으신 후에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쓴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험담을 했거나, 우울증이거나, 부모님과 나쁜관계에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당신은 그러한 문제들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책에 쓰여진 해결책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 해결책이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다거나, 그로인한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당신에게 내재할 확률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65 페이지의 기독교인이 됨에 관한 편지와 77 페이지의 복음에 관한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영어로 쓰여진 신약전서와, 웨스토 키번저(Festo Kivengere)가 쓴 혁신적인 사랑(Revolutionary Love), 짐 윌슨(Jim Wilson)이 쓴 기독교인이란 (On Being A Christian)을 원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예수님의 쉽고도 심오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저와 개인적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독 전도회(Community Christian Ministries)

사서함 9754 (PO Box 9754)

모스코, 아이다호 83843-0180 (Moscow, ID, USA 83843-0180)

전화와 팩스(Phone and Fax): (208) 883-0997

이메일(E-mail): ccm@moscow.com

웹페이지(On the web): www.ccmbooks.org

이 소책자에 수록된 글들의 저자들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주소를 이용하십시오.

